

## 색다른 시각,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... '수프와 이데올로기' 등

김은진 기자 | 승인 2021.09.09 17:33

국·내외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9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. 16일까지 진행되는 영화제는 39개국에서 출품한 126편의 다큐멘터리 상영작을 선보인다. 이번 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살펴본다.



수프와 이데올로기/판문점

### ■ 숨겨져 있던 역사의 한 장면을 꺼내다... <수프와 이데올로기>, <판문점>

영화제는 양영희 감독의 <수프와 이데올로기>로 시작을 알린다. <수프와 이데올로기>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일본에 어머니와 딸만 남은 상황에서 시작한다. 혼자 사는 노모가 걱정됐던 딸은 매달 도쿄에서 오사카의 본가로 찾아간다.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딸에게 자신이 제주 4·3에 관련돼 있다고 말을 꺼낸다. 영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다시 꺼내 보인다.

송원근·김용진 감독은 <판문점>을 1951년 7월 한국전쟁 당시,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막으려고 세웠던 판문점에 대해 이야기한다. 영화는 협상 당시 연합군과 공산군의 피 말리는 협상 과정과 협상과 동시에 벌어졌던 잔인한 전쟁의 양상을 동시에 보여준다. 두 감독은 이를 통해 한국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려고 했다.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오늘날 판문점의 의미까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다.



M의 유래/저항의 드럼소리

### ■ 짧지만 강한 단편... <M의 유래>, <저항의 드럼소리>

< M의 유래>는 장원석 감독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담았다. 장 감독은 할아버지와 다른 이들을 통해 들은 것을 촬영하고

글로 기록했다. 조선소의 노동자, 기술자,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과 굴곡진 삶을 살아온 할아버지의 과거와 기억들을 현재의 단조로운 일상을 통해 드러낸다. 직업들의 변화는 여러 번의 개명 끝에 가지게 된 이름처럼 불안한 삶과 겹쳐 보인다.

사이 초 카잉 감독의 <저항의 드림소리>는 냉혈한 미얀마의 모습을 그렸다. 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는 권력을 장악했다. 쿠데타 이후 '드림 레볼루션'이라고 불리는 젊은 미얀마인들이 거리로 나와 군사 독재에 항의했다. 하지만 독재 군부는 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한다. 영화는 25분짜리 짧은 영상 속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처절한 모습을 담고 있다.

김은진기자

저작권자 ©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은진 기자